

한국인 근대건축가의 형성과 후원자

宋 律

(서울대 건축학과 조교)

1. 서론

한국근대건축은 세가지 범주로 인식된다. 첫째는 한국에 지어진 서구건축을 근대건축으로 정의하여 개항을 근대건축의 시작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 둘째는 건축생산방식과 기술의 발전, 그리고 그 광범위한 전파로 근대건축을 정의하여 수원성 축조를 근대건축의 출발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으며 세째는 근대건축을 서구 모더니즘으로 해석하여 한국에는 아직 근대건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¹⁾ 이들 중 본 연구는 첫째의 정의, 즉 전통건축과의 대비개념으로 근대건축을 정의하는 연구의 연장선 상에 진행된 것이다. 한국에 지어진 서구건축을 한국근대건축으로 보는 것은 '역사의 단절'이라는 문제를 낳는다는 지적이 있다.²⁾ 그렇지만 근대화가 서구화와 어느정도

연관관계를 유지하는 제 3세계에서 전통과의 단절은 어느정도 필연적인 근대화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설령 한국근대건축이 전통건축의 일괄된 발전의 결과물로 해석가능하게 될지라도 현재의 건축이 전통건축보다는 서구화된 건축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한국근대건축연구는 또다시 한국현대건축과 '역사의 단절'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 지어진 서구건축을 한국근대건축이라고 한정하는 작업이 한국현대건축과 관련을 가지는 역사로서 한국근대건축을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건축물이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떻게 설계 또는 시공되었는가에 대한 단편적인 자료의 나열에 그치는 역사서술은 의도없는 순수한 관심에서 비롯된다 하더라도 역사적인 연결관계를 설명불가능한 것이거나 그릇된 관계로 보이게 할 우려가 있다. 공식적으로 훌륭한 한국 근대건축물 중에도 이후의 건축양상과 무관할 경우는 그 역사적인 의미가 왜소해질 수 밖에 없으며 역으로 보잘것 없는 건축이라 할지라도 이후의 건축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는 그 의미가 역사적으로 부각되어야한다. 역사에 대한 관점이 현재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상황이 끊

1) 한국근대건축의 정의에 관한 여러가지 주장은 나름대로의 적절함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정의가 '..... 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도하지는 않는다. 각기의 정의는 '가족유사성'을 지니는 것이다.

2) 김 홍식, '19세기말-20세기초 한국건축의 성격', '민족건축론', 227쪽

임없이 변화하는 만큼 역사에 대한 관점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인에 의한 한국근대건축은 숫적인 면이나 규모 면에서 동시대의 일본인이나 서양인에 의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이었지만 해방과 더불어 현재에 이르는 연관성을 고려하면 그 역사적인 의미는 다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도를 가진 본 연구는 서구건축을 한국근대건축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주체의 문제를 부각시켜 재조명 하고자 하는 작업의 첫걸음이다. 즉 서구나 일본의 영향관계에서 한국근대건축을 조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활동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한국인의 건축활동이 한국인 후원자들과의 관련하여 형성되었음을 밝히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2. 한국인 근대건축가³⁾의 형성

2-1. 목수 출신 건축가

서구식 건축을 접한 목수로서 심 의석이 알려져 있다. 그는 1887년 배재학당 강당 및 몇채의 양옥을 지어 본 경험을 가지고 1895년 5월 7일 판임관 6등의 내부 기수로 출발하여 기사가 되었고 승급을 계속하여 1905년 8월 30일 영선사자장까지 되었다.⁴⁾ 융희2년(1908년) 1월 31일 사정된 궁내부 직원록을 보면 심 의석은 토목과의 기사로 칙임관 3등3급에 종2품의 직위를 가지고 있었다.⁵⁾

3)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 근대건축가를 서구식 건축물을 디자인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설계한 건축물이 알려지지 않은 김 윤기, 장 연채 등 다수의 건축가들이 제외되었다. 이는 건축물을 디자인한 사람만이 건축가라고 정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한정한 것일 뿐이다.

4) 「관보」 제 32호 에서 3861호(개국 504년 5월 7일에서 융희원년 9월 30일), 김 순일, 「경운궁의 영전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26쪽에서 재인용.

5) 「궁내부 직원록」, 1908. 당시 궁내부 토목과의 주사에는 6품의 김 우식, 기수에 조 한정과 유 해중, 박 계홍이 있는데 이들 중 서구 건축에 접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조 한정이다. 1934년 조선건축회의 회원으로 가입했기 때문이다. 가입당시 이왕직 영선계(궁

심 의석은 배재학당의 공사 이후 독립문(1896-1897)과 석조전(1900-1909) 공사에도 관여했다. 독립문 건설 당시 사회 지도급 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독립협회 위원이었다는 사실과⁶⁾ 1908년 궁내부에서 종2품의 칙임관 3등3급까지 진급하였다는 사실은 그가 전통 목수에서 출발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까지 올랐다는 것을 말해 준다. 물론 당시의 종2품은 조선시대 무관의 종 2품과는 성격이 다른 공훈위주의 직급이었다.⁷⁾ 전통적으로 장인들이 받던 대우보다 심 의석이 받은 대우가 높아진 것은 장인의 전문영역이 변화된 것이라기 보다는 갑오경장 이후의 사회적인 변화의 일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심 의석이 독립문이나 석조전 공사에 참여하였지만 그것이 그 건물을 디자인 하였다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석조전은 상해의 영국인 기사 G.

내부)에 있었으나(朝鮮建築會, 「朝鮮叢譯」, 1934년 6월호) 그가 전통건축에서 서구식 건축까지 접했는지는 더이상 알 수 없다. 이왕직 영선계에는 조 한재(23년 회원명부)도 있었다.

6) 독립협회 회장겸 회계에 안 경수, 집행 위원장 직에는 이 완용(외무대신), 서기에, 이재연(서울시장), 그리고 위원에는 김 가진, 김 종환, 민 상호, 권 재형, 이상재, 기 근호, 현 흥택, 김 이현, 남궁여, 송 혼빈, 심 의석, 정 형철, 방 한수, 오 세창, 현 제복, 홍 우간, 조 형섭 등이었다. (임 창영저, 유 기홍역, 「위대한 선각자 서재필박사 전기」, 공병우 글자관 연구소, 1987. 147쪽)

7) 고종 31년(1894) 7월 16일 군국기무처의 결의로 재래의 정 1품 대국보국승록대부로부터 종 9품 장임랑에 이르기까지 정, 종 18개 30자급을 1품, 2품만 정, 종을 두고 3품이하는 정, 종을 두지 아니하며 모두 11개를 설치하고 이것을 다시 칙임, 주임, 판임으로 구분하였다. 고종 32년(1895년)에 다시 대왕보국승록대부 이하 품계의 칭호를 폐지하고 다만 정1품, 종2품 등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전에는 품계와 봉급이 관계가 있었지만 이 때에 이르러서는 봉급과는 관계가 없고 국가에 공훈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것이 되었으며 봉급은 칙임, 판임, 주임의 등급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즉 칙임은 4등급 주임은 6등급, 판임은 8등급이었다.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 600년사」, 3권 331페이지)

R. Harding이 설계하였고 독립문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러시아인 사바친이나 스위스인이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있다.⁸⁾ 심 의석이 서구건축에 경험을 쌓았고 어떠한 형태로든 근대건축물의 공사에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디자인에 있어서는 전통건축을 위주로 했을 것이다. 심 의석이 설계한 전통건축물로 알려진 것으로 기념비각이 있다.⁹⁾ 심 의석이 장인에서 서구적인 의미의 건축가로의 변모되었다고 이야기할 근거가 될 만한 자료가 없다.

심 의석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었다는 것은 전통적인 장인의 사회적 위상에 비추어 보면 괄목할 만한 것이지만 심 의석 개인의 입지를 벗어나 일반 목수 출신으로서 근대건축에 접한 장인들 전반의 위상이 높아졌다거나 장인에서 근대건축가로 변신한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목수 출신에서 근대건축가로의 자구적인 변신은 그 재 생산 구조가 전혀 마련되지 못하였다.¹⁰⁾ 따라서 심 의석과 같은 전통 목수 출신으로 서구건축 수법을 익힌 사람은 단편으로 끝 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¹¹⁾

2-2. 교육에 의한 근대건축가의 배출

전통목수에서 시작하여 근대건축가로의 변신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근대건축가의 탄생은 새로이 설립되는 근대건축교육기관에 기대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한국인 근대건축가의 출현은 근대건축교육기관의 출현과 관련된다. 최초의 근대건축교육기관으로 1907년 시작된 공업전습소의 목공과가 알려져 있다.¹²⁾ 그렇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공업전습소는 최초의 근대건축교육기관이라고 보기 힘든 점이 있다.

첫째는 造家科라는 명칭과 교과과정이다. 공업전습소 목공과 내의 조가과가 건축과 관련이 있는 학과였다. 목공과는 조가, 가구, 차량 3개 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가구와 차량은 각각 가구제작과 차량(손수레정도였을 것) 제작법을 가르쳤다. 일본에서 공부대학 조가학과가 1877년에 생기고 제국대학 조가학과로 되는 것이 1886년이고 건축학과로 개칭된 것이 1898년이다. 1887년 생긴 조가학회도 1897년 건축학회로 개칭되었다. 일본에서는 이미 조가라는 명칭이 건축으로 대치된 지 10년이 지난 뒤인 1907년에 생긴 공업전습소의 조가과라는 명칭은 19세기 말 영어 architecture와 동격으로 사용하던 일본의 造家라는 것보다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1879년에서 1880년 사이 공부대학의 교과과정과 학칙을 담은 영문의 소개책자에 나와있는 조가학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과정(Technical Course) 중의 조가(Architecture)는 (1) 측량(Surveying), (2) 재료강약학(Strength of Materials), (3) 지질학(Geology), (4) 조가 및 가옥구조(Architecture and Building Construction), (5) 도화(Drawing Office) (6) 도화(Freehand Drawing) 등이다.'¹³⁾ 그에 비해 공업전습소의 조가과 교과과정은 건축이라기보다 기능에 치중된 것이었다.¹⁴⁾

공업전습소를 최초의 근대건축교육기관으로 보기 힘든 두번째 이유는 출신자들의 사회 진출이라는 측면에서이다. 일본에서는 1877년 생긴 공부대학 조가학과가 일본 최초의 근대건축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고 1879년 1회로 이 학교를 졸업한

8) 윤 일주, 「한국양식건축 80년사」, 아정문화사, 1965.

9) 김 정동, 「한국근대건축의 재조명」, 「건축사」, 8707. 김 정동은 심 의석 설계라고 명시하였지만 주가 없어 확인 할 길은 없다. 한 편으로는 배 희한목수의 스승인 최 백현이 지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배 희한 구술, 이 상룡편집, 「이제 조선에도 녹이 슬었네」, 뿌리깊은 나무, 1981. 41쪽)

10) 1907년 정부에 의해 개교한 공업전습소의 교수진은 전부 일본인들로 이루어졌다.

11) 물론 조 승원처럼 목수에서 건축가로 변신한 예가 있기는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일 뿐이다.

12) 김 정동의 「한국 근대건축교육의 기점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지 83년 10월)와 양 상호의 「한국의 건축교육에 관한 실증적 고찰」(건축역사학회지 2호)에 공업전습소를 최초의 한국근대건축교육기관으로 주장하고 있다.

13) 일본건축학회, 「近代日本建築學發達史」, 1803쪽에서 재인용.

14) 공업전습소의 목공과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자료: 朝鮮總督官房總務局印刷所印刷,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 朝鮮總督府工業傳習所一覽」, 1915.)

공통보조학과과정표

학년	1학년			2학년		
	1학기	2학기	3학기	1학기	2학기	3학기
산술	분수 소수	단비례 복비례				
물리	역학, 열	자기, 전 기, 음광				
화학	무기	무기				
도화	용기화					
국어	문법	문법	문법	통신문	통신문	통신문
영어	철자					

목공과 과정

		제1학년			
		제1학기	제2학기	제3학기	
학 과	공통	木工材料 工具用法	木工材料 工具用法	木工材料 工具用法	
	조가		家屋構造	家屋構造	
	차량				
실	조가	예비 (小細工)	木材綴手 同部仕口	鉋削 및 鉋打練習	
	가구	예비 (소세공)	指物仕口 組手	抽出類	
습	차량	예비 (소세공)	車輪 및 車臺	鐵物取府 및 挽物	
		제2학년			
		제1학기	제2학기	제3학기	
학 과	공통	木工材料	木工材料	木工材料	
	조가	家屋構造, 規矩 建築圖	家屋構造 矩, 仕様見積 建築圖	家屋構造, 規矩, 仕様見積 建築圖	
	가구	가구제작법	가구제작법	가구제작법 및 가구의장	
		家具圖	가구도	가구도 및 설계도	
과	차량	차량제작법	차량제작법	차량제작 및 설계법	
		차량제작	차량제작	차량제작 및 설계도	
실	조가	예비(小細工) 健前造作	木材綴手 同部仕口	鉋削 및 鉋打 練習 建具類	
	가구	戶棚類	挽物應類 가구류	만물용류 건구류	
습	차량	예비(소세공) 및 修善	설계제작	설계제작	

辰野金吾 등 조기학과 출신이 건축가로서 일본건축계의 주도가 된다. 그러나 1907년 생겨난 공업전습소와 그 출신자들 중 건축가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1915년까지 배출된 90명의 목공과 졸업생 중에서 해방 이후까지 그 활동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손 형순이 유일한 인물이다. 1910년 3월 공업전습소 목공과 2회로 졸업한 손 형순은 1915년 공업전습소 일람에 의하면 조선총독부 영선과 소속이었다. 1923년 조선건축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가입 당시 총독부 내무국 건축과 소속으로 기재되었다. 그러나 1911년과 23년 직원록에 손 형순은 기재되어있지 않다. 직원록에 기재되지 않는 낮은 직급이었을 것이다. 1938년에서 39년 직원록에는 총독부 관방 회계과 기수로 기록되어있다. 졸업 직후 총독부에 입사하였다면 기수로 진급하기까지 무려 28년이 걸렸다는 이야기가 된다.¹⁵⁾ 그렇지만 그가 독자적으로 설계한 건축물은 알려진 것이 없다. 1909년 1회 졸업생인 李基浩는 공업전습소의 교수진¹⁶⁾이 되었고 이후 일본 동경부 공예학교에 유학하였지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다.¹⁷⁾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공업전습소가 최초의 근대건축교육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시간적으로 제일 먼저 생겨난 건축관련학교라는 점 밖에는 없다. 정부에 의해 설립된 학교였지만 통감부 설치 이후였기 때문에 실제적인 주도는 일본인들이었다. 따라서 공업전습소는 일제의 통치전략과 병행하여 이해될 때 그 성격을 파악 할 수 있게 된다. 통상 일제의 통치기는 10년대의 무단통치기, 20년대의 민족문화말살정책기, 30, 40년대 병참기지화 정책기로 분류될 수 있다. 공업전

15) 손 형순은 해방 이후 조선건축기술단의 고문역할을 하였고 이후 주택영단에 몸을 담았다. "조선건축" 1948년 1월호에 손 형순이 쓴 年頭辭 '우리의 일'이라는 글이 있다.

16) 1915년 공업전습소 교수진으로 學長心得의 技手 德久與市, 技手 李基浩 渡邊德之助, 囑託教師에 山本幸太郎 등이었다. (공업전습소일람) 공업전습소 일람

17) 서울공업고등학교 동창회, 「서울 공고 90년사」, 1989, 59쪽 ; 서울공고 90년사에는 李基浩으로 나와있다.

습소의 경우를 보면 10년대의 무단통치기라는 통치전략과 더불어 이해될 수 있다. 일본인들 교수진에 의해 이루어진 교육은 건축가를 양성하고자 한 것 보다는 한국의 수탈에 필요한 기능인들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한국의 통치를 정당화한 일본은 경제적인 수탈을 강화하여 10년대는 주로 조선의 토지를 근대화하는 이름으로 수탈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수탈에 앞서 한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조사를 행하기 위해 임시토지 조사국을 설치하여 1910-1918까지 운영하는데 이 임시토지조사국의 인원을 보면 대부분이 조선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1914년까지 공업전습소 목공과 출신자 90명 중 15명이 임시토지조사국에 고용되었다.¹⁸⁾

2-3. 근대 건축가의 형성

한국인 건축가가 경성고공(경성공업전문학교포함)을 졸업한 이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은 다음의 표가 잘 나타내 준다. 해방 전 한국인으

18) 공업전습소는 매해 2회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1914년 7회 졸업생까지 목공과 졸업자 총 90명을 배출하였고 그들의 취업상황은 다음과 같다. (자료: 朝鮮總督官房總務局印刷所印刷,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 朝鮮總督府工業傳習所 一覽」, 1915.)

취업지	명수
자영	24
임시토지조사국	15
사망	2
교원	6
공업전습소	7
총독부	3
용산철도공장	3
기타	9
미확인	21
총계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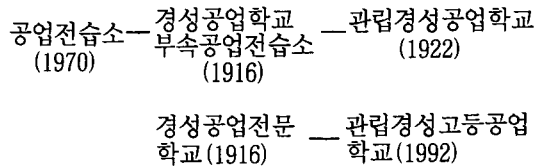
19) 그들의 작품에 대해서는 논자의 「한국근대건축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57-58쪽 참조. 유 상하의 작품은 알려진 것이 없었으나 1932년 오 원석 병원이 유 상하의 작품인 것으로 확인.

로서 서구식의 건축물을 설계한 것이 알려진 사람들 중 강 윤과 박 인준을 제외하면 모두가 경성고공 출신들이다.

〈표 1〉 해방전 독자적으로 설계한 작품을 남긴 한국인 건축가¹⁹⁾

성명	출신교	졸업
박길룡(1899-1943)	경성공업전문학교	1919
김세연(1897-1975)	경성고등공업학교	1920
강 윤(1899- ?)	대판공업학교	1923
박동진(1899-1980)	경성고등공업학교	1926
박인준(1892-1974)	미네소타대학교	1927
유상하(1908-1950)	경성고등공업학교	1930
유원준(1909-)	경성고등공업학교	1931
이천승(1910-1992)	경성고등공업학교	1932
김희춘(1915-)	경성고등공업학교	1937

1915년 공업전습소에서는 처음으로 일본인들의 입학 받았다.²⁰⁾ 한국인들의 평균 연령이 20세 전후인데 반해 일본인들의 평균 연령은 12, 3세였고 졸업후에도 14, 5세에 불과하여 취업이 어렵자 일본인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졸업후에도 일본의 공업학교와 동등하게 수업연장을 희망하였다.²¹⁾ 이러한 시기에 설립된 경성공업학교의 목표는 '공업의 진보발달에 필요한 기술자 또는 경영자를 양성'하는 것이었고 공업전습소의 목표는 '도제를 양성'하는 것으로 명시되었다.²²⁾



20) 서울공업고등학교 동창회, 「서울공고 90년사」, 72쪽. '4월의 선발시험에서 한국인은 111명 응시에 57명이 합격하였고 일본인은 39명이 응시하여 전원 입학되었다.'

21) 앞의 인용., 73쪽.

22) 경성공업학교의 교육강령; 이.만규, 조선교육사 2, 거듭, 1988에서 재인용.

경성공업전문학교와 그 후신인 경성고등공업학교 출신 한국인들의 활동이 두드러진 것은 이 학교가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편성된 학교였고 따라서 한국인으로서 입학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야했기 때문에 그 출신자들의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2〉 〈표 3〉)

년도	조선인	일본인	년도	조선인	일본인
1919	2	3	1931	2	8
1920	1	5	1932	1	14
1921	0	2	1933	0	9
1922	0	4	1934	1	11
1923	2	3	1935	1	12
1924	2	4	1936	3	7
1925	1	8	1937	3	9
1926	3	8	1938	6	2
1927	1	3	1939	7	6
1928	0	10	1940	6	8
1929	1	11	1941	7	11
1930	1	12	1941	3	8
	14	73		40	105

〈표 2〉 경성고공 건축과의 민족별 구성²³⁾

독자적인 설계작품을 남긴 건축가 뿐 아니라 건축전문영역 전반에서 한국인들의 활동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경성고공의 졸업자들이 배출되면서 부터였다.²⁵⁾ 그렇지만 경성고공(공업전문학교 포함) 출신들이 배출되기 시작하는 1919년부터를 한국인 근대건축가들의 활동이 시작하는 시기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전에도 독자적인 설계작품이 있을 수 있지만 자료로 알 수 있는 최초의 한국인 건축가의 독자적인 설계작품은 1929년 박길룡의 김 연수 주택이라 할 수 있다. 김 연수 주택을 독자적인 최초의 작품이라고 본다면 졸업에서 독자적인 실무까지는 약 10년이 걸렸다는 이야기다. 졸업후 독자적인 설계까지의 10년 기간을 단순히 설계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기간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유 상하는 1930년 졸업하여 1932년에 오원석 병원을 설계하였고 유 원준은 1931년 졸업하여 1936년에 임가장 빌딩을 설계하였으며 이 천승은 1932년 졸업하여 1937년에 영보빌딩을 설계하였다. 이들은 각기 졸업에서 독자적인 설계까지 2년에서 5년 정도의 실무경험기간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근대건축교육을 받고 배출된 한국인 건축가가 독자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20년대 후반이라는 사실은 건축가들의

	관청	자영	회사	교육	상급학교	가사기타	사망	계
방직과	27	4	14	5	2	27	6	84
응용화학과	43	3	42	21	5	30	1	145
토목과	108	0	21	4	3	5	4	145
건축과	60	2	33	7	0	16	3	121
광산	16	6	46	7	5	1	3	84

〈표 3〉 경성고공출신의 사회진출²⁴⁾ (1933년까지 취업분포)

23) 京城高等工業學校一覽(1933, 1941년판), 서울대동창회 명부(1993년판) : 33년까지는 33년 경성고공일람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였고 41년까지는 명부를 확인하였음. 서울대 동창회 명부에는 1926년 졸업한 손 민수가 빠져있음.)

24) 京城高等工業學校一覽, 1933년

25) 1939년 朝鮮技術家名簿에 게재된 朝鮮工業協會 회원 중 한국인 건축관련회원은 28명이며 이 중에 다음의 6명을 제외하면 모두가 경성고공출신이었다.

성명	출신교	졸업년도	근무처
권 경열	일본대학	1936	
김 택진	橫濱고공	1930	경남합계과영선계
김 종량	동경공대	1928	경성재목상
백 진기	일본대학	1938	경성재목상
김 윤기	早稻田대	1928	총독부
이 용재	동경공대	1927	총독부회계과영선계

건축주	년도	건축물명	설계자
독립협회	1886	전환국	스위스인 또는 사바친
	1892	인천 전환국	
	1898?	大觀亭 (궁내부대신관저)	
	1897	독립문	
	1900?	靜觀軒	
	1900	용산전환국	
	1901?	惇德殿	
		九成軒	
	重明殿		
	環碧亭		
이갑外	1908	서북학회	
	1909	기독교청년회관	
	1909	石造殿	
이준	1915	尹德榮 별저	
	1912?	李垞 저	
김성수	1921	천도교중앙교회당	中村與資平
	1926	동아일보	橫濱건축사무소+ 中村誠
배귀자外	1935	동양극장	
왕가	1937	덕수궁미술관	中村與資平

〈표 4〉 한국인 건축주의 건물 중 한국인에게 의뢰하지 않은 건축물²⁶⁾

실무능력말고도 이 시기부터 한국인 건축가들에게 설계를 의뢰하는 건축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가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3. 한국인 후원자의 등장

한국인이 건축주가 되어 지어진 근대건축물은 19세기 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개항 이후 지어지기 시작한 서구건축물의 주종은 외국의 영사관 건축물이나 외국인들의 주택인 양관 그리고 기독교와 천주교 계통의 건축물이었다. 1886년 전환국을 필두로 궁내부대신관저인 大觀亭(1898?)과

경운궁(덕수궁) 내의 靜觀軒(1900경), 惇德殿, 九成軒, 重明殿, 環碧亭, 石造殿 등 왕실건축물과 구한국 마지막 왕후인 尹妃의 伯父 尹德榮의 별저(1915년 경 착공) 李垞 저택(1912년경) 등은 정부나 귀족을 중심으로 한국인이 건축주가 되어 지은 근대건축물이었다. 〈표 4〉

전체적인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통계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주장할 수는 없지만 한국인 건축가들이 독자적으로 설계한 건물의 건축주가 대부분 한국인이었던 점은 한국인 건축가가 설계한 다음의 작품 목록에서 파악할 수 있다. 서양의 후원자와 같은 개념으로 한국인 건축주들을 후원자라 칭할 수는 없지만 식민지 상황이었고 한국인 건축가들의 독자적인 활동이 전적으로 한국인 건축주들에게 의존적이었던 점을 들어 한국인 건축주들을 후원자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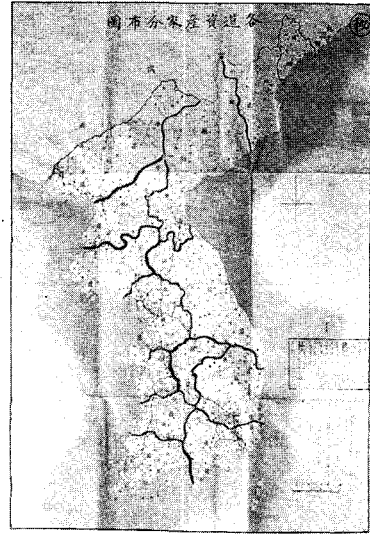
1920년대 후반은 두가지 면에서 전환점이 된다. 하나는 근대건축물의 한국인 건축주가 왕이나 귀족 또는 정부에서 민간으로 변환되기 시작했

26) 1905년 을미보호조약 이후는 정부가 발주한 공사를 할지라도 일본인들이 주체가 되었으므로 제외하였다. 의정부청사(타지부청사:1907), 대한의원(1908), 공업전습소 본관(1907), 평리원 및 한성재판소(1908), 광통관(1909), 내부청사(1910), 농상공부 청사(1901), 부산세관(1910), 인천세관(1911) 등의 건물이 그것이다.

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민간에서 짓기 시작한 근대건축물을 토대로 한국인 건축가들의 독자적인 실무활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926년 김 성수가 건축주였던 동아일보사는 일본인에게 설계의뢰되었지만 1934년의 보성전문 본관은 한국인에게 설계의뢰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1920년대 후반의 이러한 변화는 조선 내에서의 근대화사설립을 제한해 오던 회사령의 폐지와 함께 이해될 수 있다.

1920년 이전의 한국인 자본가들은 지주및 상인들을 중심으로 금융 및 상업에 경제활동이 집중되었다. 1920년 일본인들이 비밀리에 조사한 조선 자산가 분포도를 보면 당시 10만원 이상의 자본을 소유한 조선인의 분포는 <표 9>와 같다.

1920년 10만원 이상의 자산을 소유한 한국인들이 평야지대에 분산되어 있으며 도시 집중이 미미하다는 것은 한국인 자산가들이 근대건축물을 요구할 만큼 근대적 성격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1910년대의 토지조사사업과 토지약탈에 의하여 조선내의 토지가 대거 일인 소유로 전환되며 1910년 회사령의 공포로 인해 조선인의



회사설립은 극도로 제한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 자본가들이 근대식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나 요구가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회사령이 폐지되는 20년대 이후 조선인 자본가들의 근대적인 기능을 요구하는 회사설립은 제한적이지만 활기를 띠 수 있었다.²⁸⁾ 토지자본이나 고리대를 주로 한 화폐자본이 상업자본이나 산업자본 또는 은행이나 증권회사 같은 근대식의 금융자본으로 전환되면서 비로소 이들 자본가들에 의한 근대건축물의 요구가 가능해진 것이다.

20년대 이후 근대화사로 전환된 한국인 자본가들이 근대건축물을 짓게 되면서 한국인 건축가의 후원자가 되었다. 또한 20년대 이후 배출되기 시작한 의사들이 개인병원을 짓기 시작하면서 이들도 한국인 건축가들의 후원자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의 방향이 사립학교의 설립에 치중되면서 세워지기 시작한 한국인 사립학교들이 한국인 건축가에 의한 근대건축물로 지어지기 시작하였다.

3-1. 자본가 후원자

후원자가 된 대자본가들은 크게 3부류로 귀족

도명	자산가수/부(도시)내 자산가수	
경기도	396	경성부 170 인천부 7
충청북도	64	
충청남도	154	
전라북도	155	군산부 1
경상북도	168	대구부 45
경상남도	247	부산부 15 마산부 6
황해도	122	
평안남도	55	평양부 10 진남포부 1
평안북도	94	신의주부 1
강원도	35	
함경남도	33	원산부 7
함경북도	9	청진부 1
전라남도	271	목포부 6
총 계	1803	도시내 자산가수 (271)

<표 9> 1920년 조선자산가분포²⁷⁾

28) 조 기준, '한국자본주의의 전사: 18세기-1945년', 「한국경제의 역사적 조명」, 한국개발연구원, 1991. 11-106쪽.

27) 朝鮮資産家分佈圖, 1920

건축주	년도	건축물명	설계자
한상용	1930	조선생명보험사사옥	박길룡
민규식	1931	동일은행남대문지점	박길룡
민규식	1931	종로백화점 동아	박길룡
민규식	1937	영보빌딩	이천승
박홍식	1935	종로빌딩	박길룡
박홍식	1937	화신백화점	박길룡
전형필	1934	북단장	박길룡
전형필	1938	간송미술관(보화각)	박길룡
김성준?	1935	한청빌딩	박길룡
안홍	1943?	이문당사옥	박길룡
임홍순	1936	임가장	유원준
	1935	조선일보	박동진
김연수	1942	경성방직 남천공장	박동진
김연수	1929	성북동 김 연수택	박길룡
이기진	1940	함흥명보극장	유원원
최창학	1938	평 동 경교장(죽침장)	김세연
박홍식	1940?	가회동 박 홍식택	박인준
윤치창	193?	가회동 윤 치창택	박인준
윤치호	193?	가회동 윤 치호택	박인준
	1934	아서원	박동진
		종로태서관	박길룡
		경성일보공장건물	유원준
백락중		태창 직물공장	박길룡

〈표 5〉 한국인 건축가에게 의뢰한 한국인 자본가의 건축물

관료출신(한 상용, 민규식), 지주출신(김 성수, 김 연수, 전 형필), 토착 상업자본(박 홍식)으로 나뉜다. (〈표 5〉 참조)

한 상용은 규장각 부제학 한 관수의 3남으로 태어나²⁹⁾ 증추원참의원을 지낸 인물로서 일본의 英語學校와 成城學校에서 공부하였다. 도회부의 장, 조선생명사장, 조선신탁, 조선공작 각 사장, 조선화재해상 조선맥주, 조선운송 각 이사(취체), 조선도시경영, 금강산전기철도, 북선제지화학공업 각 감사를 지냈고 조선방적 상담, 조선실업구락부회장, 제국비행협회 조선철도협회, 조선방송협회 각 이사를 지낸 인물이었다.³⁰⁾ 이 완용이

의숙이었던 한 상용은 일본의 명사들과 교제할 기회가 많았고 많은 일본인들과 친분을 유지하였다.³¹⁾ 그가 조선생명보험사 사옥을 박 길룡에게 의뢰했는 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그가 1928년 조선생명주식회사 사장에 취임한 것으로보아 1930년 조선생명보험사옥이 신축될 당시 건축주였을 가능성이 높다.

박 길룡이 설계한 동일은행과 종로백화점 동아, 이 천승이 설계한 영보빌딩의 건축주인 민규식은 귀족 출신으로 민영환의 서장자로서 민씨 가문 재산의 모든 실권을 쥐고 있었다.³²⁾ 그는 동일은행 頭取, 영보(합명회사)대표, 동방식산, 조선중안주조(주)취체, 계성(주)감독을 지냈고 영

29) 반민족문제연구소, 「친일과 99인」, 2권, 돌베개, 1993.

30) 帝國秘密探偵社, “大衆人事録”, 13편, 1940.

31) 반민족문제연구소, 앞의 책.

32) 반민족문제연구소, 「친일과 99인」, 1권 229쪽.

국에서 유학하였다. 1931년 민 규식 소유로 신축된 동아백화점은 화신과 경쟁관계에 있던 백화점으로 결국 화신에게 패배하여 그 건물이 화신에 넘어가게 되었다. 35년 화재로 소실된 건물을 재건축한 것이 현재의 종로빌딩이다. 민 규식은 한 일은행두취를 거쳐 1937년에는 휘문의숙상무이사를 지냈다. 그는 6.25전쟁 중에 납북되었다.³³⁾

박 길룡이 설계한 주택과 박 동진이 설계한 경성방직 남천공장의 건축주라 할 수 있는 김 연수는 김 성수의 동생이며 전라도 지주출신으로 경성방직(주) 사장, 조선신탁, 조선저축은행(주) 각 감사, 조선서적 인쇄, 소화기린맥주(주) 취체, 삼양사(자) 대표를 지낸 바 있고 1921년 교토제국대학 경제학부졸업 경성 섬유 전문 경성방직 취체역, 해동은행 전무등, 조선공업협회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중추원 참의원을 지내면서 학병을 권유하는 등의 친일 행위로 반민특위에 회부되었지만 민족운동가에게 독립운동자금을 제공했다는 공로를 참작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인물이었다.³⁴⁾

김 세연이 설계하였다고 알려진 경교장의 건축주인 최 창학은 광산업으로 자본을 모은 인물이었다. 대창산업(주) 대표와, 다사도철도, 경성방직, 매일신문사(주)의 이사(취체)역을 지냈다.³⁵⁾ 해방 후 반민특위에 회부되는 등 일제시기의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 지탄을 받자 죽점장³⁶⁾을 백범의 사저로 쓰도록했다.³⁷⁾ 또한 경성공업학교 광산과 교사를 최 창학이 기부하기도 하였다.³⁸⁾

화신백화점과 종로빌딩의 건축주인 박 홍식은 평안남도 출신으로 곡물무역업, 인쇄업등으로 시작하여 1924년 조광인쇄사장에 취임하였고 이후 화신백화점, 화신무역, 선일 지물, 서선산업, 대동공업, 대동직물 사장, 북선제지화학, 조선석

유, 평안철도, 제주도공업, 조선생명, 조선공작, 경성방직의 취체(이사에 해당), 장기일일신문 감사를 지냈다.³⁹⁾ 동척 위원, 군수공업책임경영 등 반민 범죄사실의 혐의로 반민특위에 회부되었지만 창씨개명을 거부하고 도산 안창호의 옥바라지를 맡은 사실 등 정상을 참작하여 검거 100일 후 병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북단장과 보화자(현 간송미술관)의 건축주인 전 형필은 거부의 집안에서 태어나 그 유산으로 문화재의 수집에 열중하였던 인물이었다.⁴⁰⁾ 문화재를 수집하여 보관과 연구할 장소의 필요로 지은 것이 북단장과 보화자(간송미술관)이었다. 예외적으로 전 형필은 상업건축물이 아니라 박물관 건축물을 지었다.

대규모 자본가들 외에도 중규모자본가들도 있다. 임가장빌딩의 임 홍수와 이문당 사옥의 안 홍이 그들이다. 임 홍수의 임가장은 1935년 설립된 회사로 토지건물의 매매와 금융, 그리고 광산 경영 및 광산금융을 목적으로 하였다.⁴¹⁾ 임 홍수는 건축청부업도 하였다.⁴²⁾ 이문당은 1925년 설립된 서점으로 도서출판 및 판매와 그에 관련된 일을 하는 합자회사였다.⁴³⁾ 임가장과 이문당 모두 설립자와 중역들이 전부 한국인이었다.

이들 한국인 자본가에 의해 금융회사사옥(동일은행, 조선생명보험사사옥), 상점(화신, 이문당, 종로백화점 동아, 종로빌딩), 사무소(한청빌딩, 영보빌딩, 임가장)와 저택(김연수, 최창학, 박홍식) 등을 한국인 건축가들이 설계할 수 있었다.

한국인 건축가와 자본가 건축주를 연결지어 고려할 경우 이들 건축주들의 자본의 성격이 민족적이었다고 이해될 오해의 소지가 있다. 식민지 상황에서 자본의 규모가 커지면 어쩔 수 없이 일본과의 제휴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건축주가 된 대규모 자본가들 대부분은 친일성향을 가지고 있었다.⁴⁴⁾

33) '이 천승, 그 지나온 건축 50년', 건축가 1980. 5/6.

34) 안 진, "미군정기 국가기구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02쪽.

35) 帝國秘密探偵社, 앞의 책.

36) 백범이 일본식의 이름이 싫다며 근처에 있는 다리 이름을 따서 경교장으로 개명하였다.

37) '백범없는 경교장', 조선일보 1992. 4. 30 기사

38) 朝鮮建築會, 「朝鮮と建築」, 1934년 9호의 기사

39) 帝國秘密探偵社, 앞의 책.

40) 최 완수, '간송선생열전', 한국민족미술연구소, 「潤松文華」, 61-122쪽

41)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42년. 24쪽.

42) 京城商工會議所, 「京城商工名錄」,

43)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7년. 346쪽

3-2. 의사 후원자

건축주	년도	건축물명	설계자
오원석	1932	오원석병원	유상하
이성봉	1942	이성봉 소아과의원	박동진
백인제	1944	백인제 외과 수술실	박동진
구영숙	1936	구영숙 소아과	박길룡
심호섭		관철동 심호섭 내과의원	유원준
윤치왕	193?	가회동 윤치왕택	박인준

〈표 6〉 한국인 건축가에게 의뢰한 의사와 건축물

일제시기 한국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출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의사가 되거나 법관이 되는 것이었다. 1916년에 경성의학전문학교가 생겨 매년 15-20여명의 한국인 졸업생들이 배출되었고 경성법학전문학교는 1922년에 개교하였다.⁴⁵⁾ 세브란스연합 의학전문학교는 1917년에 생겼다.⁴⁶⁾ 3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한국인 의사들의 개인 병원이나 주택이 한국인 건축가의 손에 의해 지어지

기 시작하였다.

尹致旺은 의학박사로서 글래스고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교수를 지낸 인물이었다. 윤치왕의 주택을 박인준이 설계했으며 이 주택은 서양식의 주택이었다.

白麟濟는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교수를 지낸 사람으로 구미각국에 유학한 경험을 가졌다.⁴⁷⁾ 또한 총독부 의원을 지냈다.⁴⁸⁾ 백인제병원은 백병원의 전신이며 인제대학은 백인제의 이름을 따서 설립한 학교였다.

한국인 의사들의 병원으로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오원석 병원이다. 오원석은 경성 의학전문학교 조교수를 지냈다.⁴⁹⁾

3-3. 사립학교

1895년 민영환이 설립한 흥화학교를 시작으로 한일합방 이전인 1909년까지 한국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는 40개교에 달했다.⁵⁰⁾ 그렇지만 1908년

건축주	년도	건축물명	설계자
유진익	1937	경성여상 구강당	박길룡
박홍식	1943	광신상업학교교사	이천승
이석구	1933	동덕여고보 교사	김세연 1908
김성수	1937	보성전문도서관	박동진 1905
김성수	1934	보성전문학교(고대) 본관	박동진 1905
현상윤 ⁵¹⁾	1937	중앙중학교 강당	박동진 1908
현상윤	1936	중앙중학교 본관	박동진 1908
불교재단	1927?	불교전수학교본관(혜전)	박길룡
이숙중	1943	성신학원	박길룡
주기용 ⁵²⁾	1941	오산중학교 강당	박동진 1907
주기용	1941	오산중학교 과학관	박동진 1907
주기용	1934	오산중학교 본관	박동진 1907
	1938	명신중학교 강당	박동진
	1937	명신중학교 본관(재령)	박동진
	1941	평안공업학교 대강당	박동진
	1940	평안공업학교본관	박동진
전형필	1940	보성중학교 별관교실	박동진
		개성정화여학교	박길룡
		대동공업전문학교	박길룡
		대신상업학교	박길룡
		청진동중앙보육학교	유원준

〈표 7〉 사립학교

이 재국이 동덕여자의숙으로 설립하여 변천한 김세연 설계의 동덕여자고보의 1933년 교사가자료로 파악된 한국인 건축가가 설계한 최초의 근대건축 교사였다. (p. 84 <표 7> 참조)

그렇지만 한국인의 사립학교 교사로서 전국적인 명성과 함께 사립학교 교사의 전형을 이룬 것은 박 동진의 보성전문 본관일 것이다. 보성전문 건축주인 김 성수는 전라도의 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1906년 昌平英學塾에서 수학하고 1908년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의 正則英語學校에 입학하고 1909년 동경 錦城中學校 5학년에 편입한 후 1914년 早稻田 대학 행정학부를 졸업한 후 귀국하여 1915년 중앙학교를 인수하였고 1917년에는 京城織紐주식회사를 인수하여 경영한 후 1919년 경성방직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920년 동아일보를 창간하였다.⁵³⁾ 김 성수와 박 동진의 관계는 후술토록한다.

3-4. 기타

그 밖의 한국인 건축가가 설계한 주택과 기타의 건물로는 다음의 것들이 알려져있다. <표 8>

건축주	년도	건축물명	설계자
김명진	1931	관훈동 김 명진택	박길룡
민모씨	1940	청운동 민씨택	유원준
윤모씨	1938	신당동 윤씨택	박길룡
윤모씨	1940	사직동 윤씨택	유원준
이모씨	1939	가회동 이씨택(전용순)	박길룡
김용제	1940	청운동 김 용제택	유원준
일본인	1939	태화기독교 사회관	강 윤
		동경건물회관	김희춘
일본인		백정빌딩	김희춘

<표 8> 기타의 건축주

4. 후원자와 건축가

4-1. 후원자와 건축가의 상호관련성

한국인이 건축가들이 독자적으로 설계한 건물의 대부분은 한국인 건축주에 의한 것이었지만 한국인 건축주들이 한국인 건축가들에게만 설계를 의뢰했다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 그렇지만 1943년 서울 내의 건축대서사 분포를 보면 한국인 건축주들이 한국인 건축가들에게 배타적으로 설계를 의뢰했다고 볼 수 있는 간접적인 근거가 마련된다. 본정은 일본인들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었고 종로는 한국인들의 상권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던 지역이었다. 종로의 4명의 건축대서사 모두가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은 종로지역에서의 신축은 거의 한국인 건축가들이 설계했다는 것을 말해준다.⁵⁴⁾ <p. 86 표 10>

44) 梶村秀樹, '민족자본과 예속자본', 「한국근대경제사 연구」, 사계절, 1983.

45) 京城諸學校一覽

4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 600년사", 619쪽.

47) 帝國秘密探偵社, 앞의 책.

48) 총독부 직원록, 1928. 113페이지

49) 1928 조선총독부및 소속관서 직원록 122페이지

50) 신 천식, 「한국교육사」

51) 중앙중학교는 김 성수가 인수하였지만 그와 막역한 친구인 현 상운이 교장으로 있었다.

52) 오산학교는 남강 이승훈이 1907년에 설립한 학교였다. 1930년 이승훈이 사망한 후 오산학교 건물이 신축될 당시 교장은 주 기용이었다.

53) 帝國秘密探偵社, 앞의 책. 김 성수의 이력은 "인촌 김성수의 생애" 참고.

54) 「朝鮮と建築」, 43년 5호의 박 길룡 추모기사 중 다음의 회고들이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笹慶 —: '……(박 길룡의 작품은)백화점, 학교, 회사, 상점, 주택 등 수도 많고 대표적인 것도 많으며 특히 종로의 스마트한 상점은 다수가 박 길룡의 작품이며 기업자의 신용 또한 컸던 것이다……'

金岡 敏雄(金 敏雄): '…… 종로의 앞을 걸어도 뒷길을 걸어도 형의 작품이 하루라도 눈에 띄지 않는 일이 없으니……'

吳英 治郎(吳 英燮): '…… 작년의 잡지에 박 선생을 소개한 글 중 '씨의 설계는 하루에 한 동이 설 정도로 일년에 365동을 설계하는 건축가'라고 말하였는데 실제로도 매우 다망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에 대한 평이다.'

지부	총수	한국인수	한국인 건축대서사
본정지부	29	4	新井 一雄, 安東 瑩振, 推火 東鎮(박 동진), 金山 民樹(손 민수)
종로지부	4	4	大原 *允(강윤), 金 宗亮, 杉原 仁俊(박 인준), 金剛 世演(김 세연)
동대문지부	10	2	廣本 柄文(이 병문), 平木 永福
서대문지부	5	3	以東 丙運, 辛島 光俊, 西原 教善(한 교선)
용산지부	12	6	金澤 松信, 德本 種億, 金山 鐘成, 松江 禹澤, 金德 壽雄, *川 義三
영등포지부	7	3또는 4	玉川 淳三, (松江 義雄), *川 宜平, *川 福來
합	67	22또는 23	

<표 10> 43년 경성부 건축대서사 현황⁵⁵⁾ (*표는 탈자)

일제시기 한국인 대자본가들의 숫자는 극도로 소수일 수 밖에 없었고 그러한 소수의 대자본가 중 건축주로 알려진 인물들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아니다.

이들 자본가들이 건축주가 되어 한국인에게 설계를 의뢰하였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왜냐하면 32년 박길룡 건축사무소가 개설되기 전까지 한국인이 운영하던 설계사무소는 하나도 없었는데 반해 일본인 설계사무소들은 다수가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31년 1월 1일 현재 조선내 본점을 둔 청부업 관련회사는 125개 회사가 있다. 이 중 주식회사는 7, 합자회사는 102, 합명회사는 16개소이다. 이들 토목건축청부회사(건설회사) 중 靑水組, 多田工務所, 朝鮮有馬組, 三

木合資會社, 坂本組 등이 설계업무까지 했다.⁵⁶⁾ 한국인 회사도 6군데 있었으나 설계를 업무에 포함하지는 않았다.⁵⁷⁾

『都市と諺巖 창간호(1940)의 광고에 나타난 건설회사 및 설계사무소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大林組 경성지점, 大倉土木주식회사 경성출장소, 鹿島組 경성지점, 間組조선지점, 靑水組 경성지점, 多田공무소, 錢組경성지점, 朝鮮工營株式會社, 東京건물주식회사, 조선건물주식회사, 今戶건축사무소, 玉田건축사무소, 新宅건축사무소, 松島건축사무소, 朴吉龍건축사무소, 中島義건축공무소, 大隅건축사무소, 太田건축장작소,

55) 朝鮮警務協會, 『都市と建築』 4집 1호, 25-27쪽의 「전국대서사명부」를 도표화 한 것임. 창씨개명으로 한국인 대서사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장 기인 씨의 도움으로 대략적인 것을 파악하였다. 경성부의 경우는 1명이 정확치 않다. 한편 1943년 전국의 건축대서사의 한국인과 일본인 숫자는 다음과 같다.

<표> 1943년 전국의 건축대서사

지역	총수	한국인수	지역	총수	한국인수
경성부	67	22(23)	경상남도	28	4
인천부	3	1	황해도	4	1
개성부	3	1	평안남도	15	6
충청북도	3	1	평안북도	14	4
충청남도	8	2	강원도	6	2
전라북도	7	2	함경남도	16	8
전라남도	17	8	함경북도	19	4
경상북도	9	6	총계	219	72(73)

56) 京城商工會議所, 『朝鮮會社表』, 1931.

57) 이들 한국인 회사는 다음과 같다.

회사명	회사주	업무의 내용
합자 送迎社	金 永琬	분묘지의 補土修覆保護 및 人夫의 供給葬儀의 請負 婚喪 必要品の 판매 및 임대 婚喪에 관한 자금의 대부
합자 東信社	金 正鎬	토목건축청부 및 재료판매
平院 합자	金 奎鎭	토목건축청부 및 곡물잡화의 무역판매
三南工務所	崔 琮球	水利測量設計鐵工建築
합자 三和組	姜 俊植	運送人夫供給請負業 및 그에 부수하는 일체의 업무
합명 京城工務所	金 恒作	堤堰築造請負業
합명 光山工務所	金 容哲	하천수리사업의 설계 및 청사진의 청부

新興건축사(趙興鎬), 藤田건축사무소, 東亞건축사(韓 敎善), 新住宅社(張之煥), 朝鮮都市經營株式會社(한국인의 사무소는 괄호 안에 이름을 기입했다. 조선공영주식회사도 한국인 회사였다).

4-2. 후원자와 건축가의 개인적 관계

후원자와 건축가의 관계는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관계를 유지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경로는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다음의 후원자와 건축가의 관계는 긴밀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박 홍식은 특별히 건축가들과 관련이 많은 인물이었다. 화신은 박 길룡이 설계하였고 박 홍식의 주택은 박 인준이 설계하였다.⁵⁸⁾ 또한 이 천승이 설계한 광신상업고등학교도 박 홍식이 설립한 것이었다.⁵⁹⁾ 또한 이 천승, 김 태식, 이 명휘, 김 명집, 김 중엽 등 다수 건축가가 참여했던 조선비행기공장도 박 홍식이 설립한 것이었다. 해방 후 이 천승, 이 희태 등을 중심으로 설립된 도시계획연구소도 박 홍식이 후원하였다. 박 홍식의 제안으로 이 도시계획연구소에서 영동지구개발계획을 제안하였다.⁶⁰⁾ 화신과 종로빌딩은 박 길룡보다 박 홍식의 건축관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는 박 길룡의 작품 중에 서양의 양식건축을 절충적으로 사용한 예가 그다지 많지 않고 둘째는 서구 모더니즘 건축에 근접하게 설계하였던 1931년의 동아백화점을 개수한 종로빌딩이 시대적으로 퇴보한 절충적인 양식건축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三越(현 신세계) 백화점을 겨냥하여 한국인도 일본인과 같은 양식건축을 가질 수 있다는 과시의 측면이 강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박 길룡이 설계한 한청빌딩(1935), 이문당(1943), 보화각(간송미술관;1938) 모두 서구 모더니즘 건축에 근접한 것이었다.

김 성수는 남달리 건축에 관심이 많았다. 1926년 완공된 동아일보사 사옥은 일본인에게 설계를 맡겼지만 1929년에서 1931년까지 구미각국을 여행한 뒤로는 보성전문학교 본관, 도서관 등을 박 동진에게 설계의뢰 하였다. 박 동진을 설계자로 선택한 데에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깔려있었다. 김 성수는 '보성전문학교의 설계는 민족의 기술자가 설계하여야 한다'⁶¹⁾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때에 주택 공사현장에서 현 상운씨의 소개로 박 동진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⁶²⁾ 박 동진은 김 성수와 만나게 된 때를 회상하면서 '... 그 당시 선생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건축을 공부한 사람이 없는 줄로만 아신 모양이었고, ...'라고 회고하고 있다. 1929년에 동생인 김 연수의 주택을 박 길룡이 설계한 일이 있음에도 한국인 건축가가 없는 줄로만 알았다는 회고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그렇지만 박 동진씨가 김 성수씨를 만난 것이 31년에서 33년 사이(33년에 김성수와 함께 안암동의 보성전문학교 대지를 둘러보았다.)라고 한다면 33년까지 경성고공을 졸업한 한국인 숫자가 16명이요 그나마 실무를 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총독부에서 기수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은 박 길룡, 김 세연, 장 연체, 박 동진 4명과 철도국의 김 윤기 정도 뿐이었다. 따라서 김 성수가 한국인 건축가를 만난 것을 의외로 알았으리라는 것도 가능하다. 이후 김 성수는 박 동진에게 보성전문학교와 중앙중고등학교 건물들을 의뢰하게 되었다. 보성전문학교 본관의 건축에 대해 '김 성수는 구미 각 대학의 건축을 살펴본 안목으로 교사로서 갖추어야할 첫째 조건은 석조건물이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러한 석조철근 콘크리트의 학교건물이라면 고딕 양식이 풍격에 맞으리라는 것이 박 동진의 생각이었다.'⁶³⁾ 도서관의 경우 '그 양식과 구조는 인촌과 논의 끝에 교수 오천석의 모교인 미국 듀크 대학의 도

58) 김 희춘 증언에 의하면 박 홍식과 박 인준은 평양이 동향인 관계로 박 홍식 주택을 박 인준이 설계하였다.

59) 「화신 50년사」

60) 건축가 1980. 5/6 원로와의 대화(1) "이 천승-그 지난 50년"

61) 인촌기념회, 「인촌 김성수의 생애」, 1976.

62) 현 상운의 주택도 박 동진이 설계하였을 것이다. 박 동진의 회고에는 선친과의 인연으로 김 성수씨를 만나게 되었다고도 진술하였다.

63) 인촌기념회, 「인촌 김성수」, 1976. 346쪽.

서관을 앨범에서 보고 이것을 참고로 한 것이었다.⁶⁴⁾ 박 동진이 총독부 영선계에 있을 당시 총독부에서 지은 석조건물은 거의 없었다. 그렇다면 박 동진은 사진을 보고서 석조건축물의 건축수법을 익혔다는 이야기가 된다. 박 동진은 설계사무소를 개설한 일이 없었고 보성전문을 설계할 때는 김 성수 집 2층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이 점은 박 동진에게 있어서 김 성수의 역할이 매우 지대했으리라는 추측을 가능케 하고있다. 이후 박동진은 석조건축물들을 주로 설계하였을 뿐 아니라 (영락교회, 남대문교회 등) 보성전문이 사립학교의 전형처럼 받아들여지게 되어 다수의 학교를 설계하게 된다.

유 상하가 설계한 오 원석 병원의 신축당시 오 원석이 자신의 신축병원에 대한 기사는 건축에 관한 그의 견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병원을 세우려고하면 그 위치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중략) 좁지만 중심지이면서 구청도 학교도 가까이 있고 교통도 편리한 곳입니다. 땅값이 높은 관계상 될 수 있는 한 땅을 효과적으로 쓰고 싶어 일부 부정합한 형상에 순응한 건축을 하려한 점이 힘들었지만 대체로 생각했던 대로 작은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래층이 31평 정도, 윗층이 27평정도로 합하면 58평여평 정도 됩니다. 방의 배치에 상당히 신경썼습니다. 좁은 대지를 될 수 있는대로 넓게 쓸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대합실을 문이 달린 실로 구획하지 않고 넓게 홀로 해서 현관 우측에 계획했습니다. 현관에서 홀은 직접 보이지 않지만 개방적이면서도 한 방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중략) 진찰실과 치료실은 창문을 넓게 해서 채광 통풍을 좋게 했습니다. (중략) 동서남북의 광선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것이 기쁘고 설계자 劉 相奎⁶⁵⁾군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는 정말로 친절하게 설계를 도와주었습니다. (중

략) 난방은 천상식에 페치카로 했는데, 좁은 건물에서는 경제상으로도 최선의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한번으로 세 방이 충분히 따뜻해집니다. (중략) 좁은 건물에 병원은 무리가 있지만 나의 전문이 외과이므로 많은 환자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해서 당분간 알맞게 충당할 것 같습니다. 치료실은 넓은 편입니다.”⁶⁶⁾

계획의도에 건축주 오 원석의 대한 세밀한 견해와 함께 건축가가 설계를 ‘도’주었다는 기록은 후원자와 건축가 간의 관계에 암시하는 바가 크다.

5. 결론

해방과 더불어 일본인들이 사라져 갔고 그 공백은 한국인으로 대체되었다. 해방 전 일본인들의 활동과 비교하면 한국인 건축가들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일 수 밖에 없었지만 그 활동은 해방이후와 오늘에 이르기 까지 이어지고 있다.

1920년대 말에서 시작하여 본격적으로는 1930년대부터 해방 전까지 한국인 건축가들의 설계는 한국인 후원자와의 긴밀한 관련하에서 성장하였다. 그런 후원자는 자본가들과 지식인 그리고 의사들이었다. 따라서 한국인 건축가들이 설계할 수 있었던 건물은 한국인 자본가가 의뢰하는 저택과 금융계통의 건물 그리고 상업건물과 한국인의 사립학교, 그리고 한국인 의사의 개인병원 등에 한정될 수 밖에 없었다. 공공건물은 전부 총독부나 관청의 설계조직 또는 일본에 자사를 두고 있는 대규모 건설회사의 설계조직이나 일본인 설계사무소에서 행해졌다.

본 연구는 한국인 건축가의 활동이 한국인 후원자와의 긴밀한 관련하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정도에서 그쳤지만 보다 더 구체적인 면에서 한국인 후원자와 건축가의 관계가 구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에서 활동한 일본인 건축가들과의 비교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더 나아가

64) 앞의 인용 367쪽.

65) 유 상규는 유 상하의 오기임. (논자, 「한국근대건축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논, 1993. 61-62쪽 참조).

66) 朝鮮建築會, 「朝鮮と建築」, 1933년 4월호.

한국인 건축가와 후원자와의 관계가 건축물에 어떠한 방식으로 표출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관계가

한국근대건축에 어떤 특성을 부여하게 되는지에 대한 것도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 하겠다.

The Formation of Korean Modern Architect and its Patronage

Song, Yul

(Teaching Assistant, Department of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genesis of Modern Architecture in Korea by Korean Architects can be explained by the Korean socio-economical condition. During the late 19c and early 20c many buildings had been constructed that contained modern function. But modern buildings designed by Korean Architects appeared through the 1930s. The 'Hwoisaryung' which was a law to restrict establishing company in Korea since 1910 was extincted at 1920. Korean modern capitalists formed after 1920 could be clients of a modern buildings.

The period of the formation of Korean modern architects met that of Korean modern capitalists. Korean modern capitalists commissioned Korean architects and Korean architects were able to practice only in the relation of its patron. Korean capital formed 6 per cent of total capital in Korea. Although Korean capitalists would be a patron of Korean architects, their requests of building were restricted to the commercial, the residential and the private educational buildings.